

서평

## 사회역사적 기억의 의미와 회상을 통한 시쓰기

-안상원, 『백석 시의 ‘기억’과 구원의 시쓰기』(역락, 2018)-

김 지 윤\*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유년기억과 ‘회상’을 통한 시쓰기
- III. 여행하는 성년주체의 기억과 기행시편의 모색
- IV. 나오며

### I. 들어가며

후기 산업사회의 그늘과 변화하는 문학 환경, 국제 정세 속에서 문학의 정의가 확장되어야 하는 시대다. ‘문학이란, 시쓰기란 무엇인가’라고 다시 물어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30년대에 등단하고 활동한 시인 백석을 다시 호명해내서 그의 시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기억’을 시쓰기 차원으로 넓혀간 시인인 백석의 작품들은 사회역사적 기억이 문화자본으로 활용되는 현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金智允, 숙명여자대학교 국문과 강사

DOI URL : <http://dx.doi.org/10.17792/kcs.2018.35..321>

안상원의 『백석 시의 ‘기억’과 구원의 시쓰기』(역락, 2018)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백석 시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현재적 의미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다.

제프리 올릭은 사회가 과거를 역사분석의 문제로만 알고 정치담론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면 현재와 관련 없는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고 하며, 기억의 정치사회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sup>1)</sup> 백석 시 연구가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참조점이 되는가에 대한 고찰이 없다면 그의 ‘기억’은 현재와 유리되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기억은 “본래 한 개인이 자신의 과거를 현재화하는 정신적 현상<sup>2)</sup>”을 말한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린 뒤에는 부재하는 것이 되며 과거에 대한 상상적 표상으로서의 기억은 과거에 대한 지시 또는 재현으로서의 기억과 상보적 관계를 갖는다.<sup>3)</sup> 기억은 회상의 과정에서 재현되기 마련이므로 시인의 기억에 대해 탐구하다보면 자연히 그것이 시로 구성되는 방식, 즉 ‘시쓰기’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이 책은 주체의 기억 행위가 시쓰기 의식과 매개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백석 시의 기억이 개인적, 사회역사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밝히려 했다. 현대 집단기억 연구의 창시자라 할 모리스 알브바슈는 기념비적 연구인 『기억의 사회적 구성들』(1925)에서 개인의 가장 원초적 기억조차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집단기억은 사회적 구성들을 통해 매개되고 유효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알브바슈 이후 사회적 기억행위는 근래 많은 학자들의 논쟁과 담론 형성의 대상이 되어왔고 한국 문학 안에서도 많은 논의를 촉발시켰다. 저자는 백석의 시세계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문학 내적 형식에만 집착해 정치적

---

1) 제프리 K. 올릭, 강경이 역, 『기억의 지도』, 옥당, 2011, 250쪽.

2)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39쪽.

3) 전진성, 위의 책, 47쪽.

이념을 도외시한 것으로 평가받은 하는 30년대 시단에서 경험을 살려냈다”라는 김종철의 평가를 긍정한다. 또한 풍속사, 장소성 연구를 통해 “개인의 기억에서 집단의 기억으로 확장되는 것, 그리고 집단기억이 개인의 세계관과 창작의 원리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한 유종호, 김윤식, 김현, 신범순 등의 연구와 기억으로서의 역사성을 환기하고 구술성에 기반하고 있는 백석 시의 연술양식을 분석한 조동일, 김명인, 고희진, 이경수 등의 연구를 제시한다. 또 최근 백석 시에서 기억을 환기하는 감정을 다룬 연구들에 주목하는데, 슬픔에서부터 촉발되는 기억이 사회역사적으로 망각된 것들, 상실된 것들을 호출해내며, 이것이 시쓰기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밝히는 연구들이다.

안상원은 이 선행연구들에서 백석 시의 기억이 단지 전통적 요소의 회복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적 세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적 근대성을 추구하여 탈식민성, 타자성 연구를 거쳐 이제 사회의식을 논의하는데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백석의 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것이 시적 주체의 감정과 시쓰기 의식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탐구하는 이 책의 문제의식은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 II. 유년기억과 ‘회상’을 통한 시쓰기

이 책은 선행연구의 관점을 더욱 확장시켜 백석 시의 ‘기억’을 개인, 집단뿐 아니라 역사, 정치적 차원에까지 두루 논의하고 그 의의를 밝히려 했다.

이를 위해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발터 벤야민의 기억이론이지만, 그 구체적인 작동방식을 망각, 회상, 수집, 장소성의 키워드로만 읽기에는 한계가 따르므로 벤야민의 전체이론을 넘나들며 “회상의 의도성과 기억과 시쓰기 욕망의 구체적인 연관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 보려했다고 밝히고 있다.

벤야민의 기억이론은 망각된 기억을 ‘회상’을 통해 찾아내려 하는데 개인

의 정체성 회복 외에도 사회 역사적 기억, 그리고 주체가 의식하지 못했던 무의식적인 것에도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타의 기억이론과 차별화된다. 회상은 능동적 행위로 주체의 의도가 강조되며, 회상된 기억이 가공되고 변화하는 모습에서 주체와 집단의 욕망이 드러나기도 한다.

벤야민의 이론에 따르면 망각된 기억은 무의지적 기억이다. 이미지는 망각을 거처며 느슨하게 풀어지고 재창조되며 상상력의 여지를 만들어주고 독해의 가능성을 확장시킨다. 이 책의 저자는 서론에 이은 2장에서 회상을 통한 시쓰기의 방법론과 목적을 발굴, 자각, 구원으로 설정하였다. 이 장에서는 무의지적 기억으로서의 ‘아우라’를 통해 백석 시의 유년기억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성인들의 기억이 의지적인 것과 달리 유년의 기억은 무의지적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선택되고 사후적으로 재구성된 의지적 기억과는 달리 망각된 기억, 상징 질서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유년의 기억은 잠재력과 활력을 지닌다. 이를 시화시키는 것을 저자는 ‘발굴’로 설명하고 있다. 유년주체가 망각된 기억을 탐사하는 것을 저자는 ‘술래잡기’라고 부른다. 여기서 주체가 찾아낸 것은 타자화된 존재들, 공동체이다.

무의지적 기억이라 할 수 있는 ‘넋말’로 표상되는 애니미즘적 사유는 근대적 시선 아래 망각되거나 억압된 미신에 대한 공포와 매혹이라는 양가적 감정을 통과하며 스스로를 발견하게 한다. 저자는 타자화된 이들의 내력을 찾고 집단적으로 망각된 기억들을 복원하며 무의지적 기억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한다는 백석시의 특징에 주목한다.

인용된 시 중 「동노부」에 대해 “유년주체의 개인적 경험과 집단의 경험이 슬픔 대신 쾌감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읽은 것은 신선하게 느껴지는 해석이었다. 공동체의 슬픈 역사를 시화하는 시들은 많지만 쾌감으로의 확장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배설의 쾌감이 있는 ‘오줌’은 금기된 것들, 비천한 것들로 명명되는 타자성을 복원하는 데 이른다. 저자는 이런 오줌에 대한 백석의 시선과 오줌의 기억이 집단적으로 확장되며 얻는 효과가

유아기의 기억, 근대 이전의 풍습 그리고 무의식적 욕망을 자유롭게 풀어놓으며 근대문명의 시선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았다. 식민지조선의 위생담론이 제국주의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참고할 때 이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바탕이 되는 근대적 발전논리에 대한 전복과 저항을 내포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저자는 백석 시의 유년주체가 기억을 언어화하는 데 나타난 특징을 이야기에 착안해 살펴보기도 한다. 저자는 이야기가 무의지적 기억을 의미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체의 무의식적 소망을 드러낸다고 보았고, 근대적 체험이나 정보와는 달리 이야기는 사회역사적 집단에서 사라져가는 경험의 영역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적 기억이라 말한다.

저자는 구비문학 서사시적 기억술을 반영하는 병렬, 반복, 나열이 백석 시에 자주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여 백석 시의 아우라적 기억이 구비문학적 전통에 기대어 표출되는 것을 다루고, 맛에 대한 감각의 경험이 이야기에 기인한다는 것을 밝혀낸다. 백석 시에 음식이 자주 나타나고 미각이 그의 주요 창작원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지만 이 책은 유년주체에게 음식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함께 전달한다는 사실을 덧붙인다. 음식을 주고받음은 삶의 서사에 대한 재현과정이며, 음식과 이야기는 서로 결합되고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낸다.

「가즈랑집」에 대한 해석도 흥미로운데, 가즈랑집 할머니가 풍성하게 만들어준 음식들을 먹으면서 유년주체가 할머니의 경험을 전달받는 과정을 세세하게 독해해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즈랑집 할머니로 이미지화된 샤머니즘적 의식을 재독하여 “이야기의 전달 통로가 되는 풍속을, 집단적인 미신이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과 숨결이 살아있는, 존중하고 전달할 가치가 있는 기억으로 재맥락화”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년주체는 식민근대화 논리의 금기와 상징질서를 비껴갈 수 있다. 저자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시인이 무당을 사람을 살리는 음식물과 연결시키듯, 그의 시가 주체를 먹이고 살리는 ‘풍속’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지는 점에

주목한다. 물론 저자도 지적하다시피 “일본에 대한 대응논리이자 일본의 논리를 내면화한다는 이중성” 때문에 ‘조선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복잡한 고민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저자는 민속, 풍속이 의례가 아닌 사람에 치중한다는 점과 풍습의 전달자들이 제국주의의 합리성, 객관성, 남성성과 반대되는 비논리성, 주관성, 여성성에 기댄 타자적 기억을 가진 타자화된 존재라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개인의 망각된 기억이 집단의 망각된 기억으로 확장되며 회상을 통해 재해석될 수 있다는 점, 풍습이나 미신은 전달자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의지적 기억의 가능성을 얻는다는 점에서 전유할 지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보았다.

### Ⅲ. 여행하는 성년주체의 기억과 기행시편의 모색

저자는 이 책의 4장에서 성년주체의 기억을 ‘꿈-깨어남’으로, 그리고 그 기억이 시쓰기로 전환되는 것을 ‘자각’을 통해 살펴보고, 백석의 기행시편 속에 나타나는 행복변증법으로서의 탐색을 찾아보며 5장에서는 유물론적 역사로서의 망각된 기억이 구원과 매개되는 방식을 탐구하였다.

백석의 기행시편은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도시 이외의 곳들을 향하는 시인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주변부에 대한 탐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백석의 기행시는 낭만적 도피라고 볼 수 없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또한 민족공동체의 동질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꿈꾸는 사람과 꿈에서 깨어난 사람의 인식이 동시에 나타나는 변증법적 자각을 의미하는 벤야민의 ‘꿈-깨어남’이라는 기억이론을 빌려오며 저자는 주체를 둘러싼 풍경과 그 풍경에서 읽게 되는 집단의 바람 혹은 소망을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백석 시의 주체가 마주치고 찾은 풍경들은 “쇠퇴해가는 삶의 구체성”이라 할 수 있고 “몰락해가는 조선, 혹은 시대의 삶이 곳곳에 배어나는 풍경 앞에서 주체가 읽어내는 집단의 소망”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자는 백석

시의 여행하는 주체들이 주변화되고 자본주의 교환가치 밖으로 밀려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감정이입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모색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바로 이 점에서, 산책자와 구별되며 “교환가치를 전유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책은 백석 시 주체들이 ‘현실압력의 전환’을 이끄는 소망과 지향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지복을 부여하는 “행복변증법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실재가 되는 기억으로서의 역사, 행복의 기억으로서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 여성인물들에게 순간적인 행복을 부여하고 상실된 행복을 여성과 결부시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여성성을 지향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백석 시 속 여행주체는 무의지적 기억인 ‘꿈-깨어남’의 현장인 파사주 속에서 감정이입을 통해 순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사물의 꿈을 읽는다. 백석 시의 주체들은 몰락을 앞둔 풍경 앞에서 상실된 대상을 상상적으로 복원하려고 한다. 저자는 이 주체들이 “꿈의 풍경을 이동하면서도 순간적으로 ‘꿈’으로 표현되는 집단과 주체 내부의 무의식적 욕망이자 소망 이미지를 읽고 그것을 시쓰기의 차원으로 전이하는 ‘자각’을 선보인다”고 보았다. 꿈을 자각하는 방식이 ‘꿈-깨어남’인데 이는 “꿈과 깨어남 사이, 그리고 과거와 현재 사이, 기억 내용과 회상하는 주체 사이의 변증법적 자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 저자는 “후각 그리고 청각이라는 감정이 여행자이자 장소로 드러나는 국경 그리고 영토를 재맥락화한다”고 쓰고 있는데 감각과 감정은 구별되어 쓰여야 하므로 표현이 좀 모호한 점이 있으나 맥락상 후각과 청각이 내면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후각, 청각이 촉발한 감정은 주체가 여행 중에 미추진 장소들을 재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진보와 발전논리를 거부하는 유물론적 역사가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시쓰기를 통해 어떻게 과거를 구원하려 했는지를 탐구한 4장의 내용은 흥미

롭다. 저자는 역사로서의 ‘기억’을 바라보는 백석의 시선이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사유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작업이 의미 있는 이유는, 옛것에 대한 백석의 깊은 관심이 곧잘 역사성을 결여한 낭만적 복고주의로 평가되곤 했던 것을 고려할 때 백석 시에 부과되었던 편견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벤야민의 멜랑콜리론을 가져와 폐허가 된 삶의 풍경을 인식한 멜랑콜리적 주체가 개개인의 망각된 역사를 불러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상실된 것의 의미를 읽어내고 미약하고 연약한 타자들의 감정을 포착하는 ‘마음’을 가진 백석 시 주체의 시선이 벤야민의 역사 의식과 맞닿는 부분을 주의 깊게 살폈다. 주체에게 마음은 “오래된 과거, 그리고 무의지적 기억의 집합체”이며 곧 ‘현재로서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비록 세계는 주체를 무력하게 할지언정 무력감을 극복하고 발화하는 행위는 시인이 해야 할 일이며 부정적 세계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어 저자는 기억으로 드러나는 정신적 본질이 순수언어로 언표화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현실적 압력을 축각으로 변주하는 주체가 비언어적 언어로 역사를 다시 쓰는 과정을 다루었다.

#### IV. 나오며

이 책은 유년기의 기억을 불러오며 사라져가는 풍속을 되살려내려 했고 조선이나 만주에서의 경험들을 의미화하려 했던 백석의 시쓰기에서 기억, 그리고 기억을 발견하는 회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고무적인 연구서이다. 백석의 시적 작업이 단순히 노스탤지어에 빠져 과거회귀를 통한 낭만적 도피를 꿈꾼 것이 아니라는 점은 백석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백석이 역사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회상의 의도성, 적극성을 통해 현실사회의 압력을 전환할 힘을 주체 내부에서 찾고

자 했다는 점을 밝혀내고자 했다.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세계가 개인에게 무엇을 박탈하고 어떤 주체를 공식기억에서 삭제했으며 무엇을 억압하였는가를 드러내려 하는 시인의 방법적 모색들을 읽어낸다는 것은 백석 시의 시사적 의의를 찾는 일이며 그의 시에 부과되어 있는 일련의 편견을 해소하는 일이기도 하다.

집단기억의 재구성 과정 속에서도 통일된 집단기억으로 규정되지 않고 넘어서고 비껴나감으로서 집단기억에서 ‘생략된 것들’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을 전복시키기 위한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저자는 시인의 시선이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 망각된 기억에 머물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호명하여 회복시키려 했음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 책은 많은 새로운 분석과 유의미한 고찰의 지점들을 보여준 의미 깊은 연구서로, 백석 연구에 있어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의 암흑기에 해당하며, 작품 속에 정치적 이념을 담아내기 어려웠던 30년대의 현실에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역사적 시선을 가지고 담론의 인식들을 넘어서는 시쓰기를 도모했다는 것은 드물고 가치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 책은 향후 백석 시의 평가에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시에 대한 신선한 해석들과 정치한 분석들도 다수 들어있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이 논문은 벤야민의 이론에 매우 크게 기대고 있는데, 벤야민과 백석 사이에 존재하는 시대와 국가, 상황의 차이에 기인하는 균열이 있어 모든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그 균열의 지점까지 대조하며 분석해본다면 식민지 조선인으로서의 백석이 가지고 있던 기억의 고유성이나 백석 시의 로컬리티를 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한 명의 이론만을 주로 따라가면서 생기는 한계점도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데, 이는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이론을 접목시키며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또한 기억에 대해서는 매우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기억을

촉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감정에 대해서는 그리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도 조금 아쉽다. 감정이 가지는 잠재적 힘에 대해 논하려면 감정이론이 보다 보완되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감각/ 감정도 서로 구분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감정이론에서 정동, 정서, 감정에 대한 논의들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서와 감정 등과 구분하여 ‘정동’을 정치의 문제로 보고 있기도 하다. 자본주의가 정동을 포섭하고 사회적 삶이 기계화되는 소위 ‘탈감정사회’의 현실에서 새로운 형태의 미시과시즘을 스스로 내면화하여 욕망하게 되는 기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후기 산업사회, 삶을 포획하는 신자유주의의 현실에 대한 참조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정의 역할에 대한 보다 정밀한 숙고와 분석이 행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미 이 책이 거두어낸 의미 있는 성과 위에 남아 있는 과제를 조심스레 제안해본다.